

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제8차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5. 8. 14.(목), 13:30 ~ 16: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전봉희, 곽동엽, 박경식, 손태진, 송은석,
안선호, 이찬희, 이향미, 정광용, 최지용(탄원)
(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유 산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개
2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농가용 저온창고 건립	공개
3	강릉향교 대성전 등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4차)	공개
4	파주 용미리 마에이불입상 주변 자동차 매매장 조성(3차)	공개
5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공개
6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7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검토	공개
8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 공양간 건립 기본설계 검토	공개
9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 종각 이전 기본설계 검토	공개
10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검토	공개
11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묘사채 건립 기본계획 검토	공개

【보고사항】

12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수장고 건립 소위원회 실시 결과 보고	공개
13	<p>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7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 범천사지 진공대사탑비 보호구역 내 발굴조사(변경허가) -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 주변 CCTV 작동을 위한 접지봉 설치 -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미륵대불입상 이전 설치 - 무주 한풍루 주변 별빛정원 반디그루 조성(변경허가) - 포항 보경사 천왕문 주변 하수관로 설치 	공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천불전 해체 및 건축물 양성화
(변경허가)-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주변 담쟁이 덩굴 제거 |
|---|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5-08-001

1.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주변에 도로 등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지하주차장 건립 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 도시계획시설 변경(지하주차장 건립 등) 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에 해당됨.

* 공통사항(주요부분)

-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24.11.28.)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유산 : 안동 운흥동 오층전탑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운흥동 231번지 일원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85m, 보호구역에서 약 43m

○ 사업내용

-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

구 분	주차장 건축계획 (안)	비고
대지면적	9,220.12㎡	
건축면적	279.51㎡(3.03%)	
각 층 바닥면적 합계	7,456.22㎡(2.58%)	
최고높이 / 층수	6.35m / 지하1층, 지상1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골구조	
용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259대 * 확장형 105대, 일반형 128대, 경형 4대, 장애인 9대, 전기차 13대	

- 도로 및 교량 신설 계획

구 분	설치 계획 (안)		비고
	당초	변경	
운흥1교	세천(하천부지)	4차선 도로	신설
운흥중로(1-52)	철도부지(자갈 포장)	4차선 도로	신설
운흥2교	세천(하천부지)	4차선 도로	신설
운흥소로(1-54)	철도부지(자갈 포장)	4차선 도로	신설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2.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주변 농가용 저온창고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보물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등 주변에 농가용 저온창고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 농가용 저온창고 건립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 약식영향진단 결과(2025.7.14.~16)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보물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시은고택 / 국가민속문화유산 안동 일성당 고택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우령길 73 등
 - 지정일 : 1971. 08. 30. / 2016. 04. 27. / 1984. 01.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안동시 하리리 212번지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80m, 보호구역에서 약 55m

○ 사업내용

구분	건축 계획 (안)	비고
대지면적	3,236m ²	
건축면적 / 연면적	196m ² (29.74%) / 196m ² (29.74%)	
최고높이	7.5m	
건축구조	철골조 + 준불연판넬(T100)	
조경수 식재	주목나무 H1.2×W1.0 5주, 스트로브잣나무 H3.0×W1.5 15주 청단풍나무 H2.5×R8 7주, 이팝나무 H3.0×R8 15주 남천나무 H0.8×3가지 100주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

3. 강릉향교 대성전 등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4차)

가. 제안사항

강원 강릉시 소재 보물 「강릉향교 대성전」 등 주변에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관)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관) 건립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 ‘24년 제11차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 결과(2024.11.21.)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 결과(2025.02.20.)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5년 제5차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 결과(2025.05.15.)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약식영향진단 결과(2025.08.01.) :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강릉향교 대성전 / 강릉향교 명륜당 / 강릉향교 동무·서무·전랑
 - 소재지 : 강원 강릉시 명륜로 29 (교동, 강릉향교)
 - 지정일 : 1963. 01. 21. / 2020. 12. 28. / 2020. 12. 28.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강원 강릉시 교동 234-7 외 3필지(임야)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 문화유산에서 약 80m, 보호구역에서 약 55m
- 사업내용

구 분	'25년 제2차 위원회 (2차, 부결)	'25년 제5차 위원회 (3차, 부결)	'25년 제8차 위원회 (4차, 신청안)	직전대비 변경사항
건물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1층
최고높이	14.45m *1, 2차 신청안은 10.2m로 오기	10.45m	7.1m	△3.35m
대지면적	5,508㎡	5,508㎡	5,508㎡	-
건축면적	295.39㎡	320.84㎡	300.03㎡	△20.81㎡
연면적	807.07㎡	804.19㎡	727.67㎡	△76.52㎡
건폐율	5.36%	5.82%	5.44%	△0.38
용적률	9.28%	9.43%	5.44%	△3.99%
건축구조	R.C	R.C	R.C	-

- 주요 변경 사항
 - 지상 1층 및 지하 1층으로 변경
 - 일주문 형태의 관리동 삭제, 전통한식 담장으로 건물 차폐
 - 건물 높이(3.35m) 감소 및 연면적(76.52㎡) 감소
 - 박공지붕으로 입면 수정 등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4.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 자동차 매매장 조성(3차)

가. 제안사항

경기 파주시 소재 보물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주변에 자동차 매매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주변에 자동차 매매장을 조성하려는 행위가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 2025년 문화유산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결과(2025.04.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 2025년 문화유산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유산분과 심의결과(2025.07.17.)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 9번지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7-2번지 외 2필지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당해문화유산에서 약 100m, 보호구역에서 30m
 - 사업내용 : 자동차 매매장 조성
 - 대지면적 : 3,864㎡/ 건축면적 : 396.40㎡/ 연면적 : 396.40㎡

- 성토량 : 608.12m³ / 절토량 : 6,833.90m³ (최대절고: 4.44m)
- 건축물 3동 건립
 - 자동차매매장 2동, 사무실 1동 (철골구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5m)
- 배수공사 : 흙관 - D=500, 68m / PE이중벽관 : D=300, 148m 등
- 토목공사
 - 식생토 옹벽 : H=0.2~3.9m, L=335m / 보강토 옹벽 : H=0.2~3.0m, L=96m
 - 아스콘 포장 : T=125mm, 2,972m² 등
- 조경공사
 - 식재면적 : 495.75m² / 248본(교목 99본, 관목 149본)
- 사업비 : 521,180천원
- 비교표

구분	1차 불허('25.4.17.)	2차 불허('25.7.17.)	3차 금회	비고 (7월 대비 주요변동)
문화유산 이격거리	1구역 (보호구역에서 9m, 문화유산에서 85m)	1구역 (보호구역에서 25m, 문화유산에서 100m)	1구역 (보호구역에서 50m , 문화유산에서 106m)	더 멀어짐 (보호구역에서 25m, 당해유산에서 6m)
대지면적	4,964m ²	4,891m ²	3,864m²	대지면적 감소 -1,027m ²
건축면적	396.40m ²	396.40m ²	396.40m ²	변동없음
연면적	396.40m ²	396.40m ²	396.40m ²	변동없음
성토량	645.17m ³	611.80m ³	611.80m ³	변동없음
절토량	8,227.97m ³ (최대절고 4.73m)	8,772.34m ³ (최대절고 4.16m)	6,833.90m³ (최대절고 4.44m)	절토량 감소, -1,938.44m ³ (최대절고 +0.28m)
건축물	자동차매매장 2동 철골구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6m	자동차매매장 2동, 사무실 1동 철골구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5m	자동차매매장 2동, 사무실 1동 철골구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5m	변동없음
배수 공사	-흙관 : D=500, 55m -PE이중벽관(D800) 114m 등	-흙관 : D=500, 68m -PE이중벽관(D800) 169m 등	-흙관 : D=500, 68m - PE이중벽관(D800) 148m 등	PE이중벽관(D300) 21m 감소 등
토목 공사	-식생토옹벽 : H=0.2~3.9m, L=197m -보강토옹벽 : H=0.2~3.9m, L=184m -아스콘포장 : T=125mm, 3,032m ² 등	-식생토옹벽 : H=0.2~3.9m, L=265m -보강토옹벽 : H=0.2~3.0m, L=96m -아스콘포장 : T=125mm, 3,246m ² 등	-식생토옹벽 : H=0.2~3.9m, L=335m -보강토옹벽 : H=0.2~3.0m, L=96m -아스콘포장 : T=125mm, 2,972m² 등	식생토옹벽 70m 증가 아스콘포장 274m ² 감소

구분	1차 불허('25.4.17.)	2차 불허('25.7.17.)	3차 금회	비고 (7월 대비 주요변동)
조경 공사	-식재면적 : 721.35㎡ -360본 (교목 144, 관목 216)	-식재면적 : 685.65㎡ -343본 (교목 137, 관목 206)	-식재면적 : <u>495.75㎡</u> <u>-248본</u> (교목 99, 관목 149)	식재면적 189.9㎡ 감소 (수량 105본 감소)
사업비	452,400천원	435,100천원	<u>521,180천원</u>	86,080천원 증가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부결 10명

5.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보호구역 조정

가. 제안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에 대한 보호구역 조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칠곡군 소재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의 보호구역 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28번지
 - 지정일 : 1969. 06. 21.
- (3) 신청내용

구분	필지 수	지적면적(m ²)	보호구역 면적(m ²)	비고
계	14	40,128	15,329.7	
기존	7	8,730	8,718.4	
추가	7	31,398	6,901.3	

라. 현지조사 의견(2025.07.15. / 문화유산위원 ○○○, 전문위원 ○○○·○○○)

- 기성리 삼층석탑이 위치한 부지는 주변 지형의 변화(토사 성토)와 사유지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탐방로 개설을 위해서는 보호구역의 확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정비계획에 따라 신청된 보호구역을 확대토록 하되, 정비계획의 진입 동선(목교)은 주변 사유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6.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전남 곡성군 소재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신규 지정('25. 03. 11.)에 따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기간(2025. 07. 08. ~ 2025. 07. 29.(21일))동안 별도 의견이 없었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문화유산명 :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태안사(원달리)
 - 지정일 : 2025. 03. 11.
 - 문화유산명 :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태안사(원달리)
 - 지정일 : 1963. 01. 21.
 - 문화유산명 :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태안사(원달리)
 - 지정일 : 1963. 01. 21

○ 문화유산명 : 보물 「곡성 태안사 일주문」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215, 태안사(원달리)

- 지정일 : 2023. 11. 02.

(3) 신청내용 :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붙임 참조)

(4) 주요내용: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 지정에 따른 허용기준 조정(통합고시)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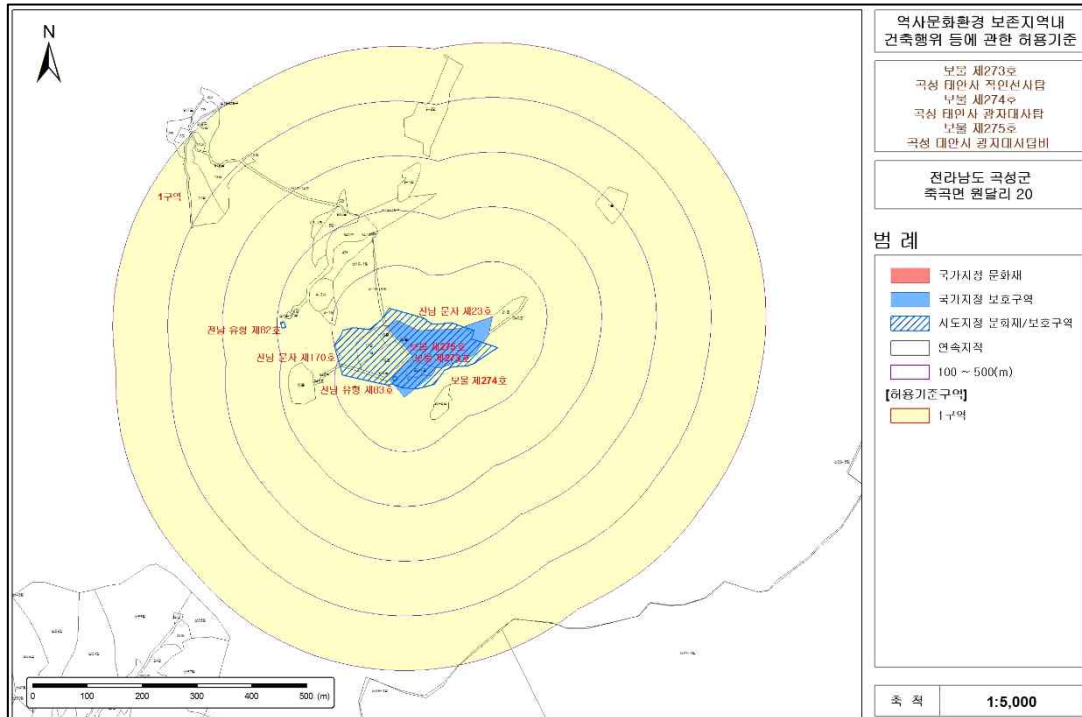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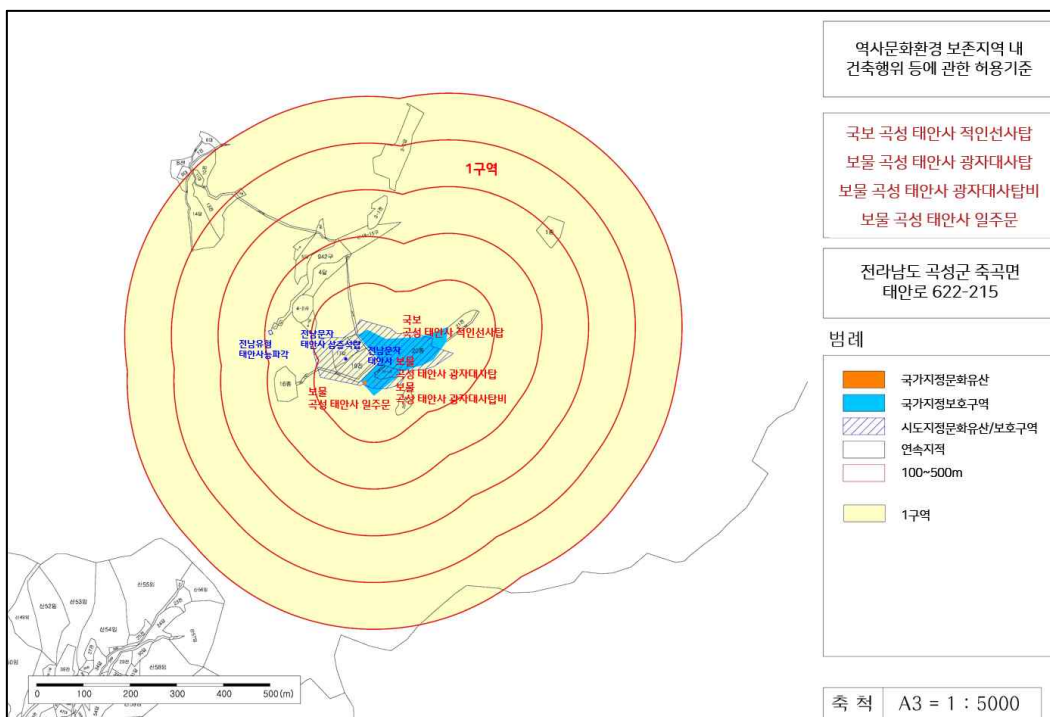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1부.

▣ 국보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물 「곡성 태안사 일주문」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 지형도면(기존) 】 *문화재청 고시 제2017-161호 (2017.12.29.)



【 지형도면(조정안) 】



【 범례 표 (기준) 】 *문화재청 고시 제2017-161호 (2017.12.29.)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범례 표 (조정안) 】 ※ 파란색 글씨: 기존 대비 변경내용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번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높이 3m 이상의 땅깍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지하 50m 이상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함 	

※ 건축팀 추가 수정의견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5-08-007

7.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광흥사 응진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안동시 소재 「안동 광흥사 응진전」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안동 광흥사 응진전」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흥사길 105
 - 지정일 : 2012. 10. 2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안동 광흥사 응진전(安東 廣興寺 應眞殿)
 - 소유자(관리자) : 광흥사(광흥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흥사길 105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지정면적 : 187.1㎡
 - 보호구역면적 : 2,113.1㎡
 - 수량 : 1동
 - 구조/형식 : 목조/5량가/팔작지붕

라. 지정조사의견(2024.08.28. / 문화유산위원 ○○○, 문화유산전문위원 ○○○·○○○)

- 문화유산위원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유산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유산전문위원 ○○○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9명, 제척 1명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08.28	대상문화유산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문화유산 명칭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해당 내용 없음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해당 내용 없음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안동 광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로서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의 서쪽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재품천주길에서 독골을 따라 1.2km를 따라 들어가면 깊숙한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학가산(해발 870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온 봉우리의 동남쪽 기슭에 해당한다. 앞쪽에는 낙동강의 지류인 풍산천(豊山川)이 흐르며, 상산(해발 520m)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풍광이 우수하다.

광흥사가 자리한 학가산은 학(鶴)이 앉았다 날아가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영가지(永嘉誌)』에는 학가산에 대해 ‘안동부(安東府)의 서쪽 30리에 있으며 혹은 하가산(下柯山)이라고도 한다. 안동(安東), 예천(禮泉), 영천(榮川) 세 고을이 둘러싸고 있으며, 그 아래는 거찰(巨刹)과 소암(小庵)이 산허리에 펼쳐져 있다. 이곳에 올라 조망하면 안력(眼力)이 다함이 있어 제산(諸山)이 구질(丘垤)과 같다. 소백산과 대치하여 속전(俗傳)에 모양이 나르는 학과 같다 하여 학가산이라 한다. 산의 최고봉을 국사봉이라고 하는데,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이 적성봉(摘星奉)이라 고쳤다. 그 외에 유선봉(遊仙峯), 삼모봉(三茅峯), 난가대(爛柯臺), 학서대(鶴棲臺), 어풍대(御風臺)가 있는데 역시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¹⁾이 이름지었다. 산의 동쪽 모퉁이에 능인굴(能仁窟)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학가산이 자리한 터는 풍수적으로 학봉에서 지맥이 내려와 산세는 용이 앉아 있는 듯하고,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스승처럼 둘러싸여 있는 형세로 안동 지역의 서쪽 명당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별처럼 흩어진 봉우리들이 바둑판처럼 배열되어 두타행(頭陀行, 고행과 수행을 상징)의 수행자들이 왕래하였다고 한다.²⁾

광흥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초기에는 왕실(王室)의 원당(願堂)으로서 안동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성장하였다. 광흥사에서는 16세기에만 21종의 불경이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으며, 숙종연간과 영조연간에도 판각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광흥사에서 고려말 또는 조선 초기에 출간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지금니묘법연화경(翠紙金泥妙法蓮華經)』과 『백지묵서묘법연화경(白紙墨書妙法蓮華經)』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옹화상(1320~1376)의 어록과 발원문(發願文)이 수록된 『안동광흥사장金字사경(安東廣興寺藏金字寫經1帖)』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광흥사에는 1446년(세종 28)에 제작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도 보관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 도난을 당하였다.

1)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은 조선중기에 활동한 문인·학자·서예가이자 승려로서 문곡선사(文谷禪師)로 불린다. 광흥사에 오랜 기간 머무르면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광흥사에는 문곡선사 행장과 문곡대사비가 남아 있다. 이황(李滉)을 스승으로 섬기고 같은 문하생인 유성룡(柳成龍), 김성일(金誠一) 등과 교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2) 「광흥사팔상전상량문(廣興寺八相殿上樑文)」

광흥사의 활발한 불경 간행 사업의 배경에는 학조(學祖)대사³⁾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에는 광흥사 지장전의 인왕상과 시왕상의 복장에서 월인석보(月印釋譜)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학조(學祖)대사는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던 신미(信眉)대사의 제자로서 1444년(세종 26)에 학가산 애련사⁵⁾에서 출가하였다. 이후 세조 등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많은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간행했던 인물이다.

불경 간행이 활발하던 16세기 광흥사에는 안동과 인근 지역의 많은 유생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광흥사에서 독서와 시문을 남기는 등 서로 교류하고, 선조의 장례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농암(壘巖) 이현보(李賢輔, 1467~1555), 퇴계(退溪) 이황(李滉, 1510~1570),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 송암(松巖) 권호문(權好文, 1532~1587),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파산(巴山) 류중엄(柳中淹, 1538~1571),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 등이 있다. 이처럼 여러 유학자들이 광흥사를 찾은 것은 출판 관련 기술과 제반 여건이 마련된 광흥사에서 문집 등을 간행할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광흥사에서는 안동지역에 사는 임자년(1552년)과 계축년(1553년)에 출생한 11명의 선비들이 우의를 다지기 위해 계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1613년 광흥사에서 의 회(契會)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임계회도(壬癸契會圖)는 현재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명종실록』에는 광흥사에서 승려와 문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기록도 있다.⁶⁾

광흥사에는 조선왕실(朝鮮王室)의 어첩(御帖)과 유물(遺物) 및 여러 경전(經典)을 봉안(奉安)되었다고 한다. 세조(世祖)는 윤사로(尹師路) 등 19인에게 법화(法華), 반야(般若) 등 여러 경전(經典)을 간행(刊行)하게 해서 봉안(奉安)하였으며⁷⁾, 세종(世宗)의 친서

3)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부친은 김계권(金係權)이다. 선종의 승려로서 1464년(세조 10) 속리산 복천사(福泉寺)에서 임금을 모시고 신미·학열 등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다. 1467년 왕명으로 금강산유점사(楡岾寺)를 중창하였고, 1476년에는 『천수경(千手經)』을 언해·교정하였다. 1482년에는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증도가남명계송(證道歌南明繼頌)』 번역을 완성하였다. 1488년(성종 19)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으로 해인사 중수 및 대장경판당을 중창하였다. 1500년(연산군 6)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간인(刊印)하고 그 발문을 지었으며, 1520년(중종 15)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간인하기도 했다. (한국민족대백과사전)

4)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지은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1459년에 간행한 목판본 불교서적

5) 학가산 애련사는 광흥사 인근에 있던 사찰로 광흥사 동종을 제작한 곳이기도 하다.

6) 『명종실록』 제31권, 1565년(명종 20) 3월 14일 / 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안동부의 광흥사(廣興寺)·봉정사(鳳停寺) 중들이 유생을 마구 구타한 것은 극히 놀랍습니다. 본도의 감사가 엄히 국문하기를 계청(啓請)한 것은 아마도 당장의 해독을 징치하고 앞으로의 근심을 없애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께서 시비가 분명하지 않은 일이라 평계하시고 다만 시추로 조율하기를 명하시니, 무릇 듣고 봄에 있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방의 유생이 사찰에서 독서하는 것은 오늘날에 비롯된 것이 아니며 도회의 유생은 관에서 양찬(糧饌)을 주어 그들을 거접(居接)하게 하였으니 명분없이 절에 올라간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중들이 능욕하고 구타하여 상해함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근고에 없던 변고입니다. 본도 감사의 계본에 의해 엄히 국문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유자(儒者)와 불자(佛者)는 일음과 숯불처럼 화합하지 못하므로 유생이 오래 승려들을 미워한다. 그런데 내가 계본의 의사를 살펴보니 시비가 분명하지 않고, 중들도 인명이므로 반드시 끝까지 추국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시추로 조율하게 한 것이다. 내가 만일 그들을 놓아주었다면 논할 만하거나 비록 끝까지 추국하지는 않지만 조율하면 저대로 그 죄가 있을 것이다. 윤택하지 않는다.” 하였다. 간원도 아뢰었으나 윤택하지 않았다. 뒤에 양사가 여러 번 아뢰었더니 그대로 윤택하고, 자세히 추국하여 계문하도록 명하였다.

7)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

(親書) 수사금자법화경(手寫金子法華經)과 영조(英祖)의 친서(親書) 대병풍(大屏風) 16첩과 어필족자(御筆簇子) 1개 등 왕실(王室)의 어필(御筆) 어시(御詩) 등 다양한 유물도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명나라 인효황후(仁孝皇后)의 권선서(勸善書) 150권(卷)중 10권(卷)을 조정(朝廷)으로부터 내려받아 봉안하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한다.⁸⁾

현재 광흥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광흥사 동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 동종은 학가산 애암사(愛菴寺)에서 1583년(선조 16)에 주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크기는 60cm에 불과하나 16세기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 광흥사 응진전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일괄(시도유형문화유산)과 1692년(숙종 18)에 제작된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시도유형문화유산)’과 1886년(고종 23)에 제작된 ‘아미타극락회상도(문화유산자료)’ 등이 소장되어 있다.

2. 연혁 및 유래

1) 광흥사 연혁

광흥사(廣興寺)는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 「광흥사중창기(廣興寺重創記)」, 「광흥사팔상전상량문(廣興寺八相殿上樑文)」, 사찰 소장 상량문 등 여러 기록을 통해 연혁을 살펴볼 수 있다. 1828년(순조 28)에 작성된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에 따르면 광흥사는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가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함홍당집(涵弘堂集)』,⁹⁾ 2권에 수록된 「광흥사중창기(廣興寺重創記)」에는 신라 시대에 창건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의상 창건설은 확실치 않지만, 경내에 남아 있는 석등과 석탑의 부재를 볼 때 광흥사는 적어도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 초기에는 사찰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흥사 경내 석물과 세부 상세

8) 광흥사 홈페이지(<http://www.kwhsa.org/intro>)

9) 고운사(孤雲寺)에 주석했던 함홍당(涵弘堂) 치능(致能) 대사(1805~1878)의 문집

『광흥사중건사적』에 따르면, 광흥사에는 원당(願堂)이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종연간에는 이곳에 “금자(金字) 법화경(法華經) 1본과 어첩(御牒) 1본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야운대선사문집(野雲大禪師文集)』¹⁰⁾ 「광흥사번와기(廣興寺燔瓦記)」에는 1747년(영조 23)에 영산전의 기와를 구웠다는 기록이 있어 경내에 영산전(靈山殿)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광흥사 응진전 추원록 서(光興寺應眞殿追遠錄序)」에는 광흥사 응진전의 불상이 조성된 지 오래되어 금칠과 채색이 많이 벗겨지고 퇴색된 부분이 많아 1750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광흥사대웅전불상개금탱화성기(光興寺大雄殿佛像改金幢畫成記)」에는 1759년(영조 35)에 대웅전(大雄殿)과 해장전(海藏殿)의 불상을 개금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는 1812년(순조 12)에 보광전(寶光殿)과 무경수각(無景壽閣)을 중건하였다고 한다.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에 따르면 1827년(순조 27)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법전(法殿)과 원당(願堂), 누각(樓閣), 종각(鐘閣) 등 470여 칸에 달하는 건물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때 소실된 건물에 대해서는 「광흥사팔상전상량문(廣興寺八相殿上樑文)」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대웅전(大雄殿), 팔상전(八相殿), 범종각(梵鐘閣), 만세루(萬歲樓), 설선당(說禪堂), 승당(僧堂), 조계문(曹溪門) 등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왕전(十王殿)과 일주문(一住門)은 다행히 남았다고 한다.

위의 기록을 볼 때 광흥사는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웅전(大雄殿), 팔상전(八相殿), 범종각(梵鐘閣), 만세루(萬歲樓), 설선당(說禪堂), 승당(僧堂), 증계문(曾溪門), 영산전(靈山殿), 응진전(應眞殿), 해장전(海藏殿), 원당(願堂), 보광전(寶光殿), 무경수각(無景壽閣), 시왕전(十王殿), 일주문(一住門) 등 여러 건물들이 존재했던 거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재 후 1828년(순조 28)부터 대규모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대웅전(大雄殿), 설선당(說禪堂), 심일당(尋鈿堂), 적묵당(寂默堂), 어필각(御筆閣), 응향각(凝香閣) 등을 중수하였다. 이때 관찰사를 비롯하여 안동부(安東府)와 인근 주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한다. 1830년(순조 30)에는 팔상전을 다시 세우고 사찰 경내 건물 일부를 중수했다고 한다.

이후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에 따르면 1849년(헌종 15)에 보광전(寶光殿), 누각(樓閣), 향각(香閣)을 이 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함홍당집(涵弘堂集)』에 수록된 「광흥사중창기(廣興寺重創記)」에는 1844년(헌종 10)에 대웅전 후불탱화를 제작하고, 1851년(철종 2)에는 만세루(萬歲樓)를 중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광흥사 소장 「동치11년임신삼월중수시상량문(同治十一年壬申三月日重修時上樑文)」에 의하면 1872년(고종 9) 대향각(大香閣), 판향각(板香閣) 중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0) 야운 시성(野雲 時聖, 1710~1776)은 1723년(경종 3) 안동 학가산 광흥사(廣興寺)와 예천 용문산 창기사 등 주로 안동과 문경, 예천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시문집인 『야운집(野雲集)』에는 「광흥사응진전추원록서(光興寺應眞殿追遠錄序)」, 「광흥사번와기(光興寺燔瓦記)」, 「광흥사대웅전불상개금탱화성기(光興寺大雄殿佛像改金幢畫成記)」가 수록되어 있다.

「학가산광흥사영산전후각상량문(鶴駕山廣興寺靈山殿後閣上樑文)」을 통해 1876년(고종 13)에 영산전(靈山殿) 후각(後閣)을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흥사는 일제강점기 이후인 1946년에 화재로 대웅전(大雄殿)과 주변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1948년에는 방화로 극락전(極樂殿)과 법당에 보관하고 있던 월인천강곡과 금강경의 10여종의 경책 100여권이 모두 불타 버렸다. 1954년도 항공사진을 보면 응진전, 요사, 누각, 명부전 등은 현재와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건물들이 남아 있었음이 확인되나 1960년대 이후 소실되었다.



1954년도 항공사진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현재 광흥사에는 2002년에 신축한 대웅전을 비롯하여 응진전, 요사, 누각, 명부전, 신령각, 응향각, 일주문 등이 있다.

2) 광흥사 응진전 연혁

광흥사 응진전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광흥사응진전추원록서(光興寺應眞殿追遠錄序)」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보전(寶殿)의 창건은 오래되었으나, 그 시작 연대에 대한 문서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은 당시 사람들의 실책이 아니겠는가. 이곳에 봉안된 불상은 해동(韓國)의 진상(眞像)으로 이름난 것인데, 조성된 지 오래되어 금색과 채색이 많이 바래고 탈색되어 아름다움을 잃었다. 건륭 경오년(1750)에 본사 전 주지인 인현(印賢) 스님이 여러 신도들과 함께 불상을 중수(重修)하고자 시주금을 모으고 재정을 마련하였다.

위의 기록을 볼 때 응진전은 오래 전에 창건되었고, 내부에 모신 소조상도 1750년(영조 26)에 중수할 때 이미 채색이 바랬다고 하므로 한참 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응진전 나한상에서 발견된 안동광흥사장금자사경(安東廣興寺藏金字寫經1帖)에는 고려말에 활동했던 나옹화상(1320~1376)의 어록과 발원문(發願文)이 수록되어 있다. 금자

사경(金字寫經)은 세종 초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¹¹⁾, 나한상은 소조상으로 16세기 이전의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응진전 용마루 망와에는 ‘천순원년정해사월정일(天順元年 丁亥四月丁日) 번와조성기(燔瓦造成記)’라는 명문과 함께 시주자와 화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광흥사 응진전은 1647년(인조 25) 이전에 이미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망와 상세 (출처 : 안동 광흥사 응진전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지정 신청 보고서)

1750년 이후 응진전의 중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종 연간까지 지속적으로 사찰 내 건물들이 중수되었음을 볼 때 응진전도 함께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흥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827년(순조 27)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응진전이 소실되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 중창 불사 기록에서도 응진전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광흥사 응진전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3년에는 단청을 새로 하고 번와공사를 실시하였다. 1996년에는 응진전 나한상에 복장되어 있던 금자사경이 도난을 당했다가 이듬해 회수되었으며, 1999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06년에는 마루를 보수하였으며, 2012년에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응진전에 봉안된 소조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일괄 지정되었다.

3. 건축 특성

1) 입지 및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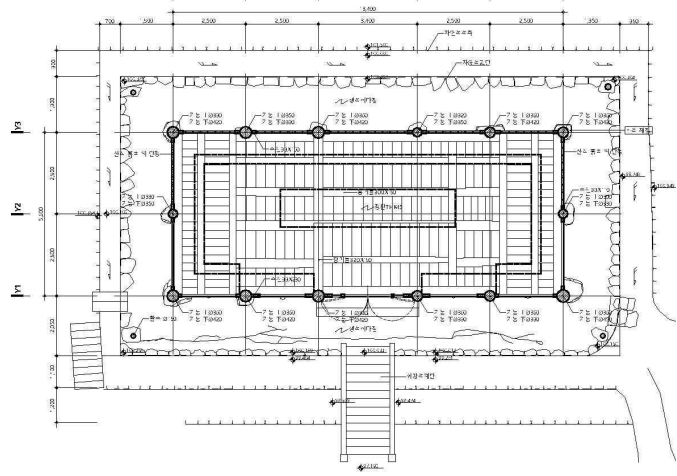
조선 후기 광흥사는 470여 칸이 넘는 대규모 사찰로서 대웅전(大雄殿), 팔상전(八相殿), 범종각(梵鐘閣), 만세루(萬歲樓), 설선당(說禪堂), 승당(僧堂), 증계문(曾溪門), 영산전(靈山殿), 응진전(應眞殿), 해장전(海藏殿), 입원당(立願堂), 보광전(寶光殿), 무경수각(無景壽閣) 등 여러 건물들이 존재하였다.

11)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현재 광흥사는 일주문을 들어서면 왼쪽 언덕에 2002년에 새로 지은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대웅전에서 북동쪽 80m 지점에는 명부전이 있다. 명부전은 의향각과 함께 사주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별도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의향각과 담장이 철거된 상태이다. 명부전에서 북쪽 100m 지점에는 응진전, 누각, 요사, 취운헌, 산신각이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사역에서 가장 높고 깊숙한 곳이다. 누각 아래로 들어서면 마당이 나오고, 응진전은 남동향하고 있는데 마치 주불전처럼 2단의 축대 위에 높게 서 있다. 누각의 동쪽으로는 □자형 요사가 연결되어 있으며 마당의 서쪽에는 취운헌이 동향하고 있다. 응진전의 북서쪽에는 산신각이 세워져 있다.

2) 건축 형식

광흥사 응진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이다. 기단은 자연석을 사용하여 1단으로 낮게 조성하였으며, 그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원기둥을 세웠다. 기둥 간격을 보면 어칸은 11자로 넓게 설정하고 나머지 칸은 모두 8자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건물 내부는 통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았는데 불상의 배치를 고려하여 방향을 다르게 구성하였다. 내부 중앙에서 약간 뒤쪽에는 불단을 마련하여 삼세불과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배면과 양 측면 벽에는 16나한상과 동자상, 인왕상, 사자상, 제석천상 등을 나누어 모셨다. 이러한 불상의 배치 방식은 다른 사찰의 응진전에서 보이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1946년에 대웅전이 소실되면서 응진전이 주불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불상의 배치 방식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 평면도 (출처 : 지정신청보고서)



안동 광흥사 응진전 정면



안동 광흥사 응진전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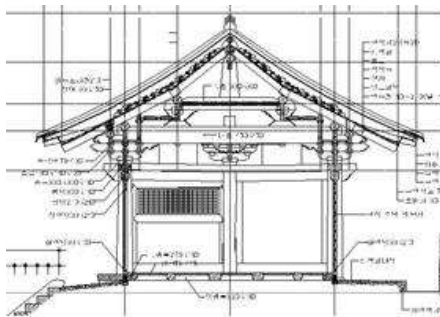


안동 광흥사 응진전 내부

출입문은 정면 어칸에만 설치하였는데 하부에 궁판을 설치한 2짝 세살문이다. 어칸

출입문 양쪽에는 판벽으로 구성하였다. 창호는 정면의 경우 어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에는 상부에 격자살로 짠 들어열개창을 설치하였으며, 양쪽 측면에서는 앞 칸에만 정면과 동일한 들어열개창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창호의 구성은 여러 나한상을 봉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 구조는 5량 형식으로 대량 위에 2단의 화반대공을 놓아 중보와 뜯장여를 받도록 했다. 화반대공은 층급천장과 결구되도록 단을 지게 처리하였는데, 창녕 관룡사 대웅전(1617년)과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보 위에는 사다리형 대공이 종도리를 받는다. 층량은 곡선형 부재를 사용하여 측면 기둥과 대량 위에 걸쳤다. 층량 머리는 권비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외부 뺄목을 직절하였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 종단면도



안동 광흥사 응진전 화반대공



창녕 관룡사 대웅전 화반대공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공포부에 있다. 정면은 어칸이 다른 칸보다 3자 정도 더 넓지만 포간 거리를 조정하지 않고 매 칸마다 동일하게 주간포 1조씩 설치하였다. 그러나 측면과 배면에서는 주간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방형 화반으로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즉, 이 건물은 다포계와 주심포계 건물의 절충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공포는 내·외 1출목 형식이다. 일반적인 다포계 건물에서 내·외 출목을 1출목으로 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광흥사 인근에 위치한 안동 봉황사 대웅전에서만 볼 수 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 정면 공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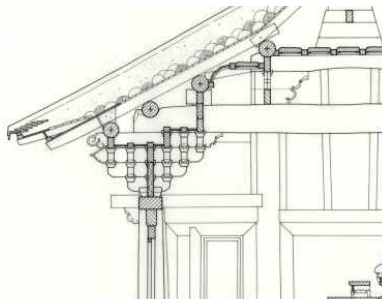
안동 광흥사 응진전 귀공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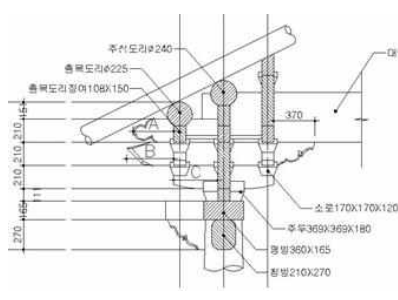
안동 광흥사 응진전 귀공포 내부

제공의 형태와 구성 방식도 독특하다. 초제공은 교두형이며, 이제공은 삼분두형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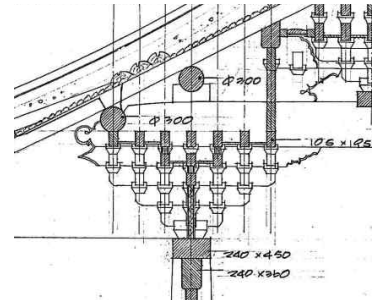
보머리에 해당하는 삼제공은 권비형이다. 배면 이제공은 삼분두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 보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 제공의 구성과 모습이 유사한 건물로는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1643년), 산청 율곡사 대웅전(1679년 중수), 칠곡 송림사 대웅전(1649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1718년), 청도 대비사 대웅전(16세기 이후 추정) 등이 있다. 이들 건물과 비교하면 삼분두가 조금 더 길게 빠져나와 있고, 출목수와 보머리의 처리 부분이 다를 뿐이다. 모두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찰로서 지역적 연관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청도 대비사 대웅전 공포
(출처 : 국가유산청)



안동 광흥사 응진전 공포
(출처 : 지정신청보고서)



산청 율곡사 대웅전 공포
(출처 : 국가유산청)

주심첨차는 소첨차 위에 대첨차를 올렸으며, 행공첨차는 하부에 초각을 두어 장식성을 높였다. 귀공포의 경우 좌우대는 3단 모두 교두형으로 처리하였다. 1단과 3단 귀한대는 교두형이다. 2단 귀한대는 정면에서는 용두를 조각하고 배면에서는 삼분두로 처리하였다. 내부에서는 3단 귀한대를 봉두로 꾸몄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추녀 하부에는 활주를 세워 받쳤다. 천장은 중도리 사이를 약간 높게 한 층급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우물반자를 시설하였다. 천장의 단이 구분되는 네 모서리 부분에는 꽃새김을 한 달동자를 설치하여 장식하였다.

4.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안동 광흥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조선 전기 원찰의 기능과 함께 불경을 간행하는 대찰로 성장한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 「광흥사중창기(廣興寺重創記)」, 「광흥사팔상전상량문(廣興寺八相殿上樑文)」, 사찰 소장 상량문 등 여러 기록을 통해 연혁을 살펴볼 수 있다.

광흥사 응진전은 광흥사 경내에서 별도의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인접한 요사, 누각과 함께 사찰 내 응진전의 위치와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흥사 응진전은 망와에 1647년에 번와하였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적어도 1647년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축의 세부 수법과 양식 등에서 17세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건물은 다포계와 주심포계 건물의 절충적인 양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공포에서 내·외 1출목으로 처리한 것은 희소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포의 세부 수법에서는 조선 중기 이전 불전의 건축 특성과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다. 다른 사찰의 응진전과 비교해 볼 때 부분전임에도 규모가 큰 편이며, 내부에 봉안하고 있는 소조 불상들도 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광흥사 응진전은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불단은 최근에 조성되어 아쉬움이 있으며, 불상의 봉안 방식에 대해서는 원형에 대한 고증이 필요해 보인다.

※ 대상 문화유산의 핵심 보존 가치

다포계와 주심포계의 절충 양식

내·외 1출목으로 구성한 공포

소조 석가여래오존상 및 16나한상 봉안을 위한 창호와 벽체의 구성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08.28	대상문화유산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속	○○○○○○연구소	직위(직책)	소장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문화유산 명칭	안동 광흥사 응진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응진전 1동, 187.1㎡ <보호물> <보호구역> 2,113.1㎡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2006년 마루 보수공사 이후, 내부공간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건물의 외부는 부분적으로 벽체 탈락, 부재 부후 등이 확인되므로 보수정비 계획이 필요함. 현재 광흥사의 중심 불전으로서 지속적인 예불공간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4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1)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안동 광흥사는 경상북도 안동시 광흥사길 105(서후면)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이다. 사역은 사면을 둘러싼 능선에 의해 위요되어 경내로의 출입은 남측 능선 사이의 숲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암자 규모의 사역은 북측 능선의 한 자락이 완만하게 흘러내린 부분에 조선 후기 산지형 4동 중정형을 기본으로 주요 전각을 지형에 맞춰 배치하였다.

북쪽의 학가산(882m)에서 뺀어내린 남측 능선이 끊어지지 않고 남동쪽으로 이어져 사역의 북측 배산을 형성하였고 이는 다시 동서로 갈라졌으며, 그리고 서측의 능선은 다시 남측으로 내려앉아 사역 전면을 가로막는 형국을 조성하였다.

현재 광흥사의 접근은 남측의 풍산읍 또는 안동과학대학교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34번 국도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죽전길로, 그리고 동측 '생명의 쿡길'를 따라 동북쪽으로 약 4km 올라 서측 재품천주길로, 다시 500m가량 서북쪽으로 오르면 광흥사길로 연결된다. 여기서 1km 정도 산길을 올라오면 광흥사 일주문을 통과하게 되며,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300m 가량 계곡을 따라 오르면 광흥사 응진전에 이르게 된다.

한편 광흥사 동쪽 2.7km에는 상산(520.4m)이 솟아 있고 그 능선은 서북쪽의 천등산(575.9m)과 연결되며, 천등산 정상 남측에는 봉정사가 입지하고 있다. 또한 북쪽에는 과거 애련사(愛蓮寺)가 학가산 남측에 있었고 광흥사 서측 능선 너머에는 관음사(觀音寺)가 있어, 주변에 크고 작은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광흥사 북측의 학가산은 안동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고려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왔을 때 쌓았다고 전해지는 학가산성이 있으며, 산성은 학가산 정상부 부근에 축조된 포곡식 산성으로 신라시대 초축 산성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주변 석탑리에는 방단형 적석탑이 있는데, 17세기 초에 편찬된 안동부 읍지인 『영가지(永嘉誌)』에 능인대사 관련 조탑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2) 연혁 · 유래 및 특징

안동 광흥사는 1828(순조 28)년에 작성된 『광흥사중건사적(廣興寺重建事蹟)』에 따르면, 신라 신문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그 뒤 여러 차례의 중건과 중수를 거쳐 대사찰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고려시대의 기록은 전하는 것이 없고, 다만 조선시대 관련 기록에서는 15세기에 불경의 보관 및 간행 등이 광흥사에서 이루어졌고 1573년 동종이 제작되었으며, 그리고 사명당 유정과 청허당 휴정 등 임란 전후 활동했던 고승들의 진영이 보관된 것으로

보아, 17세기 이후로도 계속하여 사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흥사의 주요 전각들에 대한 기록은 18세기 이후 사적기 및 상량문 등을 통해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는데, 먼저 1705년(숙종 31) 산내 암자가 화재로 소실되었고 재건 공사는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어 1794년(정조 18)에 이르러서야 복원이 마무리되었으며, 1747년(영조 23)에는 영산전의 번와 공사를 진행하였고 1750년(영조 26)에는 응진전의 불단 및 불상을 중수하였다. 그리고 1760년(영조 36)에는 대웅전과 해장전의 불상을 개금, 금화하였고 1812년(순조 12)에는 보광전, 무경수각을 중건하였다.

그런데 「광흥사팔상전상량문(廣興寺八相殿上梁文)」에 의하면, 1827년(순조 27) 화재가 발생하여 대웅전과 팔상전, 범종각, 만세루, 설선당, 승당, 요사, 증계문(曾溪門)이 소실되어 다음 해인 1828년 대웅전을 중수하였고 이어서 설선당, 적묵당을 상량하였으며, 응향각 및 기타 범사(梵舍)를 중수하였다. 그리고 1830년에는 팔상전과 일부 건물을 중수하였다. 즉 1827년 화재 당시 사찰의 시왕전(十王殿)과 일주문을 제외하고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고 다음 해부터 복원 공사를 시작하여 1830년에는 과거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844년(헌종 10) 대웅전 후불탱화를 조성하였고 1849년(헌종 15)에는 보광전의 누각 및 향각에 대한 이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851년(철종 2)에는 만세루를 중건, 1872년 대향각 및 관향각 중수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876년(고종 13)에는 영산전 후각(後閣)을 건립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6년 사주문 건립이 사찰의 마지막 불사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광복 후인 1946년 화재로 대웅전이 소실되었고 1948년에는 방화로 인해 극락전이 전소되었으며, 1954~1962년에는 대웅전 영역의 학서루와 대방이 퇴락하여 무너졌으며, 또한 칠성각이 이건 됨으로써 광흥사는 명부전 영역을 제외하고 폐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의 광흥사는 본래의 대웅전, 극락전 등이 위치하였던 본사가 아니라 광흥사에 부속된 산내 암자로 추정되며, 주요 전각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작은 암자의 신앙 대상이었던 응진전에 피해를 면한 석가모니삼존불을 중앙 불단에 함께 모시면서 중심 법당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과거 광흥사의 역사성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응진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건물의 마루기와 망와의 명문을 살펴보면, 1647년에 기와를 제작하여 번와하였다는 내용을 살필 수 있고, 또한 『광흥사응진전추원록서(廣興寺應眞殿追遠錄序)』에 따르면 1750년(영조 26) 응진전의 불단 및 불상을 중수하였다고 한다.

응진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3단의 높은 석축 위에 동남향으로 좌향을 잡았으며, 좌우로 취운헌과 요사채를 배치하고 전면에 누각 형식의 출입문을 두어 전체적으로 口자형의 4동 중정형 배치구성을 보인다. 서측 취운헌의 배치축을

약간 우측으로 설정하여 건물로 위요된 중정은 사다리꼴의 부정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응진전 서북쪽으로 산신각을 동향으로 배치하였다.

응진전은 정면 8-8-11-8-8척(尺)이고 측면 8-8척으로, 어칸을 제외한 모든 주칸을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건물의 출입문은 어칸에만 설치하였으며, 전면 좌우 협칸과 퇴칸, 그리고 양 측면 협칸 상부에는 가로로 긴 걸창을 달았다. 한편 측면에 대한 정면의 평면비는 2.69 : 1의 매우 세장한 장방형 구성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응진전 중에서 기림사 응진전과 함께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건물의 가구는 대들보와 종보를 올린 5량가이며, 공포는 다포계 형식이지만 건물 전면에만 주간포를 설치하였고 배면과 좌우 측면에는 간포를 생략하고 간단한 방형 판재의 화반으로 처리하였다. 공포는 내·외 1출목으로 2제공 상부에 대들보를 바로 올렸으며, 외목도리를 받는 3운공은 대들보에 이음한 별재로 처리하였다. 공포 구성의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3제공에서 사용되는 삼분두 형식을 2제공에서 사용함으로써 공포대의 높이를 일반적인 건물보다 낮게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균일하지 않는 포작 배열, 주심소·대첨차와 출목첨차의 크기 차이, 그리고 삼분두 형식을 2제공에서 사용하였다는 점 등 포작 구성이 일반적인 법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볼 때, 창건 이후 후대에 증축 또는 개축 등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분두 형식의 살미를 2제공에 사용한 사례는 안변 가학루와 개성 남대문 등으로 전형적인 다포식 공포의 내외 1출목 포작에서 나타나며,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건물들이다. 한편 대들보 위의 화반 동자주는 첨차를 생략하고 뜯장혀와 종보를 받치는 주두의 구성 등 17세기 중엽이후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지금의 응진전은 3×2칸에서 5×2칸으로 좌우 퇴칸을 후대에 증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좌우 퇴칸의 대들보와 내출목장혀의 결구가 부자연스럽고, 귀포의 내부 도매침 치목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으며, 특히 퇴칸 마루 귀틀이 주심을 벗어나 있는 점 등 후대에 증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좌우 측면 공포의 경우 운공을 생략하고 층량이 직접 외목도리를 받고 있어 전·후면과 다른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본래의 광홍사는 창건 이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화재로 많은 전각들이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였는데, 응진전은 중심 사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명부전 영역과 함께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본사가 완전히 폐찰된 1962년 이후에는 광홍사의 본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응진전은 광홍사 소속의 작은 불전이었다가 본사의 폐사 이후 그 역할을 계승하면서 주불전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

사적 가치가 인정된다.

응진전은 처음 창건 시에는 배면과 같이 기둥 위에만 포작을 올린 맞배지붕의 주심포계 포집으로 추정된다. 이후 주불전으로 기능과 위계가 바뀌면서 5×2칸으로 규모가 커졌으며 또한 격식에 맞춰 전면에 다포식 공포가 설치되고 지붕 또한 팔작지붕으로 개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응진전은 주심포계 맞배집이 주불전화 되면서 좌우로 공간이 확장되고 다포계 팔작집으로 건축형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포는 포작 배열과 첨차의 크기, 그리고 삼분두 살미를 2제공에 사용하는 등 다포식 공포의 일반적 법식에서 벗어난 형식으로 후대에 증축 및 개수 시에 외부로는 출목수를 줄이고 내부에는 1출목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외부로만 출목을 갖는 주심포계 절충식 공포에서 평방과 간포를 갖춘 다포식 공포로 변화하는, 포작 형식의 변화를 살필 수 있는 사례로서 건축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의견>

광흥사 응진전은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붕의 망와 및 관련 기록 등을 볼 때, 17세기 중엽 이전에 이미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초 건립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규모와 양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1960년대 이후 광흥사 본사의 폐찰 이후 새로운 광흥사의 중심 불전으로서 역할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광흥사는 창건 이후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화재로 많은 전각들이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였는데, 응진전은 중심 사역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명부전 영역과 함께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통사찰에서 응진전은 일반적으로 중단(보살단) 영역에 속하는 부불전으로 대개 3×2칸 규모로 조영된다. 광흥사 응진전은 현재의 입지로 볼 때 본래는 대응전이 위치한 본사의 중심 영역에서 벗어나 북쪽에 별도로 배치된 소규모 부불전으로 추정되며, 어느 시기에 5×2칸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주불전의 격식에 맞춰 다포식 공포로 개수되었으며, 16나한상뿐만 아니라 삼존불을 함께 수용하면서 광흥사의 중심 불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응진전의 정면 3칸에서 정면 5칸으로의 증축 및 개수 흔적은, 첫째 실내의 마루 구성에서 귀틀의 위치와 청판의 설치 방향이 다르고, 둘째 공포의 배열, 첨차의 크기 및 결구 위치, 대들보 및 층량의 외목도리 결구방식, 그리고 내부 귀포의 첨차 가공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넷째 화반동자주의 변형과 반자 구성 등 천장이 후대에 가설되었을 가능성, 다섯째 출목 간격과 내목도리의 생략, 여섯째 응진전(‘應眞殿’) 편액의 크기 등 다양한 부

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응진전은 새로운 광흥사의 중심 불전으로 17세기 중엽 이전에 창건되어, 중창이 아닌 중축 및 개수 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변형된 건축 형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응진전은 사내의 소규모 부불전이 주불전화 되고 그에 맞춰 건축형식과 구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국가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4.08.28	대상문화유산	안동 광흥사 응진전	
조사자	성명	○○○	전공 분야	건축역사
	소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부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문화유산 명칭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문화유산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 (안)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1. 문화유산 명칭 : 안동 광흥사 응진전

2.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적 환경 :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광흥사길 105에 있는 광흥사의 주불전으로, 안동시청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12.5km 떨어진 학가산(해발고도 882m) 남동쪽 자락에 있다.

3. 연혁·유래 및 특징 :

응진전이 있는 광흥사는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 경내에는 응진전(應眞殿)과 학서루(鶴棲樓)를 중심축으로 좌·우에 대방(大房), 응향각(凝香閣), 칠성각(七星閣), 요사채 등 10여 동의 크고 작은 전각이 있다.

광흥사의 창건은 삼국시대 의상대사로 전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고, 조선 초기 세종~세조 연간 금자법화경 어첩(御牒), 반야경 등을 보관하는 원당 사찰이었다. 이후 1573년 김자산(金慈山)과 원오(元悟)비구의 동종 제작, 17~18세기 사찰 전각과 암자 중수, 화재 등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1827년 화재로 시왕전과 일주문을 제외한 500여 칸의 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1828년 대규모 중창 불사가 진행되어 대웅전과 설선당, 심검당 등의 복원된다.

4.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

1. 역사성 : 응진전은 창건 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고식 건축기법이 남아 있다.

광흥사 응진전의 초창시기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건축부재에서 고식 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광흥사 학서루에 있는 종도리에는 “自大明嘉靖十三年甲午至太清乾隆五十年乙巳合二百四十四年 木手 信雄, 克敏” 즉, 무슨 건물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535년 창건되고 이후 1785년 건립 50년에 삼중창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 목수 비구 신응과 극민이 참여한다.

이 종도리가 어느 건물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응진전의 창호와 공포의 일부 부재에서 임진왜란 이전 고식 기법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응진전이 17, 18세기 중창을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건물임을 고려해 본다면 대략적인 건물의 역사가 이 종도리 목서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종도리 목서의 가정십삼년인 1535년은 광흥사에 『불설아미타경』(1527년), 『묘법연화경』(1530년), 『금강반야바라밀경』(1530년) 등의 23종 불경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황금기인 중종 연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종도리 목서의 기록과 사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응진전은 1535년 창건된 건물이고, 17~18세기 중수

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역사적인 건물임을 알 수 있다.

2. 예술성(건축성) : 불전의 정면성과 다포와 주심포 중간 단계의 공포를 구성하고 있다.

응진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 겹처마 팔작지붕집이고, 사찰의 주불전으로 중앙에 석가여래 오존상과 좌우로 16 나한상, 16 동자상 등을 포함해서 총 42구의 불·보상이 봉안되어 있다.

응진전은 자연석 기단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평면을 구성하고, 정면에만 기둥 상부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간포를 배치하고, 배면과 측면에는 주간포를 대신하여 화반으로 마감하고 있다. 불전정면에만 주심포와 주간포를 배치한 정면강조 불전이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 많은 사찰의 불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응진전처럼 정면을 강조하는 불전이 조성되고 있는데, 주간포의 숫자를 줄이거나, 살미나 첨차의 형태를 다르게 만드는 사례가 확인된다.

응진전은 내·외 1출목으로 정면 주간포 사이에 포벽을 구성하고, 배면과 측면은 화반과 좌우 심벽으로 마감하고 있다. 공포 주두의 운두가 높고, 주두 위 1체공 내·외부 주심포와 주간포에는 교두형 살미, 하부는 삼분두로 깎아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외부 주심포와 주간포 2체공 살미는 강직하고 예리하게 초각한 삼분두, 내부 주심포는 대량 하부에 보아지 형태의 연화두형 살미, 주간포로 구성하고 있다. 응진전처럼 교두와 삼분두, 운공을 결합한 공포 형태는 주로 17세기 팔공산 일원의 동화사 수마제전, 칠곡 송림사 대웅전, 청도 운문사 대웅전 등의 불전에서 즐겨 사용했던 건축기법으로 지역적인 특징의 반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¹⁾

응진전처럼 교두와 삼분두를 결합하여 공포를 조립하는 불전의 교두 내·외 단면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반면 삼분두의 경우 외부와 내부의 형태가 다른데, 동화사 수마제전의 경우 외부와 내부가 동한 삼분두 형태이다. 이에 비해 광흥사 응진전과 관룡사 대웅전, 운문사 대웅전, 대비사 대웅전 등은 모두 외부는 삼분두이고 내부는 초각형 보아지 형태이다.

응진전 살미 내부의 초각형 보아지 형태는 출목첨차 하부의 연화두형 첨차와 동일한 형태로 쌍S짜이다. 주심선상의 상·하 첨차가 교두형인 반면 출목 하단의 첨차는 연화두형으로 차이가 있다.

응진전 공포의 연화두형 보아지와 첨차는 화반동자주의 화려한 대량 상부의 동자화반 모습과 상당부분 닮아 있다. 즉, 응진전의 세부 건축의장은 일정한 통일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공포의 교두형 삼분두와 운공을 결합하는 모습은 17세기 팔공산 일원의 운문사

1) 오세덕, 『조선 후기 불교건축사 승려장인의 활동지역과 건축기법』, 민속원, 2021, p.89.

대웅전과 동화사 수마제전 등에서만 확인되고 이후 18세기 불전에서 확인되지 않는 모습으로 17세기의 공포 의장의 반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대량의 경우 내출목장여 결구가 세밀하지 못한 점 또한 주심포와 다포의 절충형식 기법이다.

광흥사 응진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기법을 정리해 보면 건물의 정면은 주심포와 주간포를 모두 두고, 측면과 배면은 주간포를 생략하고 있는 정면 강조 불전이다. 불전 내·외 1출목 공포의 세부형태와 내출목장여의 결구법이 세밀하지 못한 점 등에서 주심포와 다포의 절충형식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불전이다.

3. 학술성 : 응진전은 사찰 주불전이지만, 부불전 의장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불전이다.

조선 후기 사찰 주불전은 상단에 불·보살을 봉안하고, 좌·우로 신중단과 영가단을 함께 봉안하는 삼단 신앙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 즉, 주불전은 불상 봉안과 배례를 하는 동시에 죽은 영혼을 천도하는 의식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비해 사찰의 부불전인 명부전, 나한전(응진전), 관음전 등은 불상이나 보살상을 봉안하고 배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불전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평면으로 구성된다. 또한, 우리나라 사찰 대부분이 산지에 입지하고 있어 주불전이 넓은 지형을 확보하는 경우 응진전같은 부불전을 조성하기 위한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지형에 맞는 건물 평면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응진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일반적인 정면 5칸 불전에 비해 측면의 칸수가 적으며, 비율 또한 정면대 측면이 비율이 2.68:1로 세장방형에 가깝다. 동일한 정면 5칸 불전인 안동 봉황사 대웅전(정면 5칸, 측면 3칸, 비율 1.84:1), 화엄사 대웅전(정면 5칸, 측면 3칸, 비율 2.134:1), 쌍계사 대웅전(정면 5칸, 측면 3칸, 비율 2.134:1), 논산 쌍계사 대웅전(정면 5칸, 측면 3칸 2.13:1), 선운사 대웅보전(정면 5칸, 측면 3칸, 2.165:1)²⁾ 등의 건물은 측면을 최대한 넓게 구성하고 있어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응진전은 정면의 넓이만 강조하고 있을 뿐 측면이 좁은 세장방형 평면이다.

응진전은 불전 비율뿐만 아니라 불단의 세부 의장에서 주불전이 아닌 부불전 요소가 확인되고 있다. 사찰 주불전 불단은 주로 불전의 중앙이나, 중앙보다 뒤쪽에 놓는 이주, 후치법 등의 배치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응진전 같은 부불전은 불단에 배치할 불·보살상이 많아 불전의 후면과 측면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 ‘ㄱ’자형 불단을 선호한다. 광흥사 응진전이 바로 불전의 후면과 측면으로 ‘ㄱ’자형 불단 배치하고 많은 불·보살상을 봉안하고 있으며, 그 중앙은 ‘一’자형 불단을 놓고 석가모니불을 포함한 5불을 봉안하고 있다. 물론 응진전 중앙의 불단과 불상은 1946년과 1948년 대웅전과 극락전의 화재로 인

2) 안동 봉황사 대웅전 정면 16,400mm, 측면 8,900mm, 화엄사 대웅전 정면 19,090mm, 측면 11,454mm, 쌍계사 대웅전 정면 18,345mm, 측면 8,593mm, 논산 쌍계사 대웅전 정면 18,377mm, 측면 8,619mm, 선운사 대웅전 정면 21,363mm, 측면 9,869mm

하여 이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불단은 ‘ㄱ’자형 불단 배치법이다.

응진전 의장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면 5칸 중에서 정칸에만 세살분합청판문을 설치하고 협칸과 퇴칸은 중인방 상부로 만살창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일반적인 사찰의 주불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전의 요소이며, 칠곡 송림사 명부전, 부여 무량사 영산전, 울진 불영사 응진전, 영천 거조사 영산전에서 확인되고 있는 감실형 구성이다. 감실형 창 역시 독립형으로 주로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조사당, 거조사 영산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식 기법에 해당하고 일부 민가 건물에서 확인되기도 한다.³⁾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광흥사 응진전은 조선 초기 건립되고, 현재 건물은 17~18세기 중수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응진전에서 확인되고 있는 공포, 창의 고식 건축기법과 건물의 정면성, 다포와 주심포의 절충 형식 등을 고려해 보면 안동 광흥사 응진전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상 문화유산의 핵심 보존 가치

- 첫 번째, 응진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지만 고식의 건축기법이 확인되고 있다.(역사성)
- 두 번째, 응진전은 정면성과 다포와 주심포 중간 단계의 공포를 구성하고 있다.(예술성)
- 세 번째, 응진전은 사찰 주불전이지만 부분전의 의장을 반영하고 있다.(학술성)

3) (독립형 창은 안동 군자정, 안동 소호헌, 후조당, 예천 야옹정 등의 민가 건물에서 확인되고 있다.)박일찬·이호열, 「조선시대 영남지방 별당과 정자건축의 ‘창얼굴’ 형식 및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11권 3호 통권82호』, 2012, p.78.

8.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 공양간 건립 기본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 금정구 소재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을 포함한 구역에 공양간을 새로이 건립하기 위한 기본설계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에 공양간을 새로이 건립하기 위한 기본 설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양간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되, 기본설계(개략 배치, 평면, 입면도 등)단계에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부산 범어사 조계문
 - 소재지 :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 지정일 : 2006. 02.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1번지 일원
 - 문화유산과 이격거리 : 조계문으로부터 약 45m, 대웅전으로부터 약 55m
 - 사업내용

구분	공양간	
	1안	2안
바닥면적	998.74m ²	991.44m ²
구조 및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한식목조	

구분	공양간	
	1안	2안
층 수	지하 1층	지하 1층
주요 용도 (실구성)	공양간1, 공양간2 다도 체험실, 사찰음식 체험실, 발우공양 체험실 주방, 세척실 지하저수조 등	공양간1,공양간2 다도 체험실, 사찰음식 체험실, 주방, 세척실 지하저수조 등
층고	5.82m	5.82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9.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 종각 이전 기본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 금정구 소재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 종각을 이전하기 위한 기본설계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물 「부산 범어사 조계문」 보호구역 내 종각을 이전 등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종각 이축 설계를 실시하되, 기본설계(개략 배치, 평면, 입면도 등)단계에서 국가유산청의 검토를 받아 추진하도록 한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부산 범어사 조계문
 - 소재지 :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 지정일 : 2006. 02. 07.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1번지 일원
 - 이격거리 : 조계문으로부터 약 45m, 대웅전으로부터 약 55m

○ 사업내용

구분	종각 이전					
	1안			2안		
	기존 시설 처분(안)		건립(안)	기존 시설 처분(안)		건립(안)
	기존 종각 철거	기존 종루 철거		기존 종각 철거	기존 종루 해체 이전	
바닥면적	55.33㎡	38.21㎡	67.32㎡	55.33㎡	38.21㎡	38.21㎡
구조 및 양식	1층 철골, 2층 목조	중층 목조	중층 목조	1층 철골, 2층 목조	중층 목조	중층 목조
건축높이	9.68m	8.96m	9.68m	9.68m	8.96m	8.96m
비고	범종		범종, 대북(범고), 목어 및 운판 설치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10.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합천군 소재 보물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보호구역 내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지반조사를 위한 기본설계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지반조사(천공)행위에 대하여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합천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9-1, 365-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합천군 야로면 월광리 365-1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서탑으로부터 5m 이격
 - 사업내용
 - N.X 천공 1식, 표준관입시험 1회

라.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보류 10명

11.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요사채 건립 기본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 화성시 소재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요사채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5년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국고보조)으로 추진 중인 보물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요사채 건립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화성 용주사 대응보전
 - 소재지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9 (송산동)
 - 지정일 : 1971. 08. 14.
- (3) 사업내용 : 용주사 대응보전 주변 요사채 건립
 - 사업위치 :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1(임야)
 - 이격거리 : 대응보전으로부터 약 170m, 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10m
 - 사업내용 : 대방요사채 건립 설계
 - 공사내용

대지위치	화성시 송산동 188-1(임야)	대지면적	113,624㎡
건축면적	128.7㎡(38.93py)	연면적	128.7㎡
구조	한식목구조	양식	초익공(겹처마), 오량가
마감	스타코플렉스 + 한식기와	층수/높이	지상1층 / 7.7m
부대공사	자연석 석축 및 배수로 설치 등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25-08-012

12.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수장고 건립(안) 소위원회 실시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경북 포항시 소재 보물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수장고 건립과 관련한 소위원회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25년 제6차 건축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소위원회 구성 후 검토하도록 의결된 보물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수장고 건립 건의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개별검토”에 해당됨.
 - ※ ‘25년 문화유산위원회 제6차 건축분과 심의결과(2025.06.19.)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 구성 후 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유산 :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지정일 : 1963. 01. 21.
- (3)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보경로 523
 - 문화유산과의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이내

○ 사업내용 : 보경사 경내 개방형 수장고 건립

구 분	'25년 6차 건축분과 심의(안)	'25년 1차 소위원회 심의(안)	증·감
건축면적	897.3m ²	822.35m ²	△74.95m ²
연면적	993.9m ²	918.95m ²	△74.95m ²
최고높이	19.88m	19.88m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	전통한식구조(동기와) 마감	전통한식구조(동기와) 마감	-

라. 소위원회 검토 결과(2025.07.08. / 문화유산위원 ○○○·○○○·○○○·○○○·○○○)

- 주출입을 남쪽에서 진입토록 하고, 하역은 동쪽에서 진입토록 검토
- 최고높이는 G.L. 13m 수준으로 검토
- 남쪽의 석벽 입면은 전통방식으로 보완
- 면적은 일부 조정토록 함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9명, 제척 1명

13.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강원 원주시 소재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보호구역 내 발굴조사(변경허가) 등 허가 신청 7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7건	원안가결 4건 조건부가결 3건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강원 원주 (○○○)	<input type="checkbox"/> 보호구역 내 발굴조사(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위치 :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517-1번지 일원 * 보호구역 내(보물로부터 약 35m 이격) * 기 허가 : 2024년 7월(원안승인) ○ 내용 : 발굴조사 면적 증가 - 2,600㎡ → 3,071㎡ / +471㎡ ○ 발굴허가 ○ 변경사유 : 흥법사지의 권역 및 삼층석탑, 진공대사탑비의 원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 필요 있다는 자문의견에 따름 ○ '25년 예산(국비) : 210백만원 *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원안가결	'25.08.04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춘천 근화동 당간지주</p>	<p style="text-align: center;">강원 춘천 (○○○)</p>	<p><input type="checkbox"/> CCTV 작동을 위한 접지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춘천시 근화동 793-1번지 * 보호구역 내(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13m 이격) ○ 내용 - 접지봉(지름 1.5cm, 길이 50cm) 5개를 60cm 깊이로 지면에 삽입 	원안가결	'25.08.04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완주 송광사 대웅전</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 완주 (○○○)</p>	<p><input type="checkbox"/> 미륵대불입상 이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0 * 보호구역 내(문화유산에서 56m 이격) ○ 내용 - 기존 미륵대불입상을 서측 16m이전 - 구조물 전체높이 : 9.38m - 미륵대불입상 : 폭 2.0m, 높이 8m - 팔각좌대 : 폭 3.5m, 높이 1.38m - 배례단 :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1m - 석등 : 가로 1.5m, 세로 1.5m 높이 3.0m * 지정유산 아님 ○ 사업비 : 20,000천원(자부담) 	원안가결	'25.08.04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무주 한풍루</p>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 무주 (○○○)</p>	<p><input type="checkbox"/> 별빛정원 반디그루 조성(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99-3번지 등 *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84m, 문화유산에서 90m) * '24년 자체검토회의(06.13.) : 원안가결 ○ 내용 - 추진배경 :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의 일환 - 야간경관조형물 설치(반디그루) : 인조나무조형물(6×6×6m) 1개소 - 야간조명(폴대 높이 7m) 2개소 - 벤치(포토존) 1개소 - 안내판 2개소 - 사업기간 : '24.6.13. ~ '25.12.31. 	원안가결	'25.08.04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포항 보경사 천왕문</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북 포항 (○○○)</p>	<p>□ 보경사 내 하수관로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일원 * 보호구역 내(보물과의 최단거리 8m 이격) ○ 목적 : 보경사 내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매설 ○ 약식영향진단 결과 : 우려 없음 * 1구역 내 공사는 우려없음 (3인 / 3인)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 옥외연결관 533m, 옥내 배수관 196m, 압송관 68m - 최저심도 1.4m - 영구 점용면적 134㎡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터파기 시 입회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25.08.04</p>
<p style="text-align: center;">보물 광양 중흥산성 삼층석탑</p>	<p style="text-align: center;">전남 광양 (○○○)</p>	<p>□ 천불전 해체 및 건축물 양성화(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90-1번지 등 * 보호구역 내 * ‘24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02.15.) : 원안가결 * ‘25년 자체검토회의(02.26.) : 원안가결 (기간연장) ○ 변경사유 : 천불전 해체에 따른 건물 내 불상 및 해체부재 등 보관필요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동(천불전) 해체 및 발굴 - 건축물 8개동 건립(양성화) - [추가]임시 불상 보관창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위치 : 옥룡면 운평리 89번지 보호구역에서 40m, 문화유산에서 135m 이격 • 규모 : 97.6㎡(가설건축물) • 최고높이 : 5.15m • 구조 : 판넬구조 • 준치기간 : ‘25.8월~‘28.7월 	<p style="text-align: center;">조건부가결 (준치기한은 ‘28.7월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5.08.04</p>

문화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국보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	경북 경주 (○○○)	<input type="checkbox"/> 담쟁이 덩굴 제거 ○ 위치 : 경주시 건천읍 단석산길 175-143 ○ 목적 : 마애불상군에 담쟁이덩굴이 서식하고 있어 문화유산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 내용 : 담쟁이 덩굴의 뿌리자르기를 통해 고사	조건부가결 (관계전문가 자문 받아 시행)	'25.08.04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